

돌봄 불평등 렌즈로 민주주의를 바꾸다

: 조안 C. 트론토의 『돌봄민주주의』

손정인*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돌봄도 그중 하나이다. 필자는 공공의료 정책 집행 현장에서 일해왔기에 넓게는 돌봄 종사자, 좁게는 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가 부족한 탓인지, 사회서비스 복잡성과 전달체계 파편성 같은 한계 탓인지 모르겠지만 ‘돌봄’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늘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 고령 인구 증가는 불 보듯 뻔한데 현재의 패러다임과 준비 중인 서비스·자원으로 미래 대응이 가능할지, 의료 공급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맡겨두지 않을지 우려된다. 원자화할 수 없는, 역사성·관계성을 갖는 개인이 노쇠,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돌봄을 받아야 할 때 단순히 ‘필요 집합체’로, 그래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지는 시선도 불편하다.

필자가 서평을 쓰기 위해 추천받은 책은 『돌봄민주주의』(조안 C. 트론토 지음, 김희강·나상원 옮김)와 『돌봄의 사회학』(우에노 지즈코 지음, 조승미·이혜진·공영주 옮김)이었다. 처음에는 돌봄 이해가 우선이라 판단하여 우에노 교수 책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추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보며 민주주의와 관련된 트론토 교

수 책으로 변경하였다.

돌봄과 민주주의에 관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이 부족한 필자가 서평을 쓰게 되어 한계가 많을 것이다. 이 서평의 부족함은 번역서 초판과 개정판의 옮긴이 해제, 해외 학술지 서평 Armeni(2014), Moskop(2015), Robinson(2014), Spinner-Halev(2014) 등을 참고하실 수 있다. 또한, 원서에 없으나 번역서에 담긴 제1부, 제2부, 제3부 핵심 요지도 참고하실 수 있다. 대신 필자는 공공보건 의료 정책 집행 현장 경험을 살려 보다 실천적 관점에서 필요한 책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서 실천적 관점이란 사업이나 프로그램 제안에 관한 요구가 아닌 실천을 위한 관점과 방향성을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트론토 교수 역시 책에서 ‘시민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돌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돌봄민주주의』는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정치학과 트론토 교수가 쓴 저서로 2013년 발간되었다. 참고로 번역서에는 원서의 부제인 ‘시장, 평등, 정의’가 생략되어 있다. 트론토 교수는 1981년 프리스턴대학교에서 「정치적 합리성은 가능한가? 홉스, 스미스, 베버 작업에서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비평」(Is political rationality possible? A critique of political control in the work of Hobbes, Smith,

*강원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연구교수 (E-mail: Jeongin.sohn@gmail.com)

and Weber)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1993년 발간된 『도덕의 범주: 돌봄윤리의 정치적 주장』(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2015년 발간된 『누가 돌보는가? 어떻게 민주정치를 재편할 것인가?』(Who Cares? How to Reshape a Democratic Politics) 등이 있다. 트론토 교수는 정치학·여성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며 돌봄 관련 사상·제도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처음에 필자는 『돌봄민주주의』라는 책 제목을 보고 돌봄 분야의 민주주의를 다룰 거라 예상했다. 이는 오해였다. 트론토 교수는 정치학과 여성학 맥락에서 돌봄을 연구한 학자로서 돌봄 중요성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이론·실천·제도를 논하고 있다. 필자가 오해한 주제는 민주적 돌봄(democratic care)이라 소개되고 있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을 중심 가치에 둔 민주주의이며 이를 통해 좋은 돌봄인 민주적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이 트론토 교수 생각이다. 여기서 좋은 돌봄이란 모든 수준의 돌봄관계에서 파워를 다루는 돌봄 정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돌봄의 목적을 가지며 구체적이고 다원적인 돌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돌봄민주주의를 통해 평등, 자유, 정의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론토 교수가 머리말에 밝힌 이 책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 우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을까?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하면 돌봄이 시장으로 기울어진 방식에 대항하는 굳건한 정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번역서 61면)

필자가 생각하는 이 책의 주요 단어는 돌봄민주주의

(caring democracy), 민주적 돌봄(democratic caring), 책임(responsibilit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 가시적 협력 모델(expressive-collaborative model),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시장(markets), 선택(choices), 자유(freedom), 권력(power), 평등(equality), 정의(justice), 무임승차권(pass), 돌봄 과정(the processes of care), 돌봄 실천(caring practices), 돌봄민주시민(caring democratic citizens)이다. 전술한 주요 용어 외에도 곱씹을 개념이 많이 있다. 여기서는 몇몇 용어와 내용을 소개하고 나머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우선, 트론토 교수는 돌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용어 측면에서 원서와 번역서를 교차 확인해보니 트론토 교수는 care와 caring을 혼용하였고, 역자들은 care를 ‘케어’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care와 caring 모두를 ‘돌봄’이라 번역하였다. 트론토 교수는 폭넓은 탐색과 실천 함의 측면에서 돌봄의 광범위한 개념을 제시한다. care와 caring의 쓰임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인용문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

1990년 피셔(Bereniece Fisher)와 트론토는 돌봄(care)의 폭넓은 정의를 제시했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잘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며 복원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의 활동으로 돌봄(caring)을 보아야 한다. 이 세계는 우리의 몸, 자아 그리고 환경을 포함하는 복합적이며 생명유지의 그 물망으로 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제안했다. (번역서 73면)

조심스럽지만 필자의 경험상 이론에서든 실천에서든 광의의 개념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¹ 그래서 이 개념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책 내용이 현실과 괴리된

1 김영민(2022)에 따르면 “개념은 직관적 표상의 한계를 넘어서 사유를 길고 정치하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돕는다. 개념이 성글다고 타박하면서 이런저런 종류의 경험론으로 미끌어지는 것은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지적·추상적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 우려했다.²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 돌봄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제도, 정치제도, 실천의 재검토를 위해 광의의 돌봄 개념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돌봄노동을 치안, 군대, 생산과 같은 확장된 개념으로 보아야 그와 같은 공적 영역의 돌봄이 남성화되고 어린이·장애인·병약자·허약자·노령자 돌봄과 같은 사적 영역의 돌봄이 여성화된, 성별화된 돌봄을 이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남성의 사적 돌봄 무임승차권도 이해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광의의 돌봄 개념이어야 돌봄민주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론토 교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돌봄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트론토 교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우리 모두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 본다. 그 평등한 대우는 차별과 배제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하며 평등의 대상(인간 역량, 인간 존엄의 기준, 고통을 느끼는 능력, 취약성, 특정 이해) 중 ‘평등한 발언권’(equal voices)을 중요하게 생각한다.³ 트론토 교수는 현재 민주주의가 의존성 있는 개인이나 이들을 돌보는 개인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책임을 민주주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돌봄책임의 수준에 대한 트론토 교수 설명이 없어 조심스럽지만 다른 사람의 돌봄필요에 대한 집단적 수준이거나 정부가 필요한 강제적인 수준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다. 결국 ‘확장된 개념의 돌봄’과 민주주의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돌봄민주주의이며 그 핵심 가치에는 돌봄책임의 분담이 위치한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제공자 활동, 돌봄 시간, 인간취약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트론토 교수가 생각하는 인간의 특성은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인간취약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하며 자율성, 독립성을 전제하는 시장에서의 인간은 비현실적이라 지적한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인간은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새로 등장한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존적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돌봄필요와 상호의존적인 모든 인간의 특성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다. (번역서 83-84면)

그렇다면 트론토 교수가 책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책임이란 소명할 수 있는, 원인일 수 있는, 신상필벌이 따르는, 응답이나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정치적 용어라고 한다. 인식론적 어원에서 책임의 핵심은 본질적, 관계적, 추상적, 역동적이라는 점이며 행위자의 자유와 그 행위의 결과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한다. ‘정치란 필요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결정하는 것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분담 관련한 결정이 정치적 삶과 사회적 삶의 골격을 구성한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 책임은 관계적 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트론토 교수가 보기에 책임은 언제 생겨나는가? 책임이 생겨나는 관계란, 옆에 있거나 생물학적, 역사적, 제

2 김영민(2022)에 따르면 “‘추상적’이라는 표현에는 항상 얼마간의 오명이 붙어있긴 하지만, 오명의 근거는 오직 수행상의 부작용일 뿐이며 ‘추상화’는 전술한 것처럼 인간의 정신이 성취한 결코 기록하지 않은 초월적 도약인 것이다.”

3 트론토 교수는 평등한 발언권이 ‘지위의 평등’(equality of standing)과 관련된다고 본다. ‘지위의 평등’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평등을 이해하는 핵심적 방법이며 책임분담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넘어 생애주기에 따라 ① 어리고 의존적인 단계의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돌봄에 대한 평등한 접근, ② 성인 단계의 평등한 발언권 보장, ③ 질병, 노령, 장애 단계의 목소리가 경청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도덕 유대 혹은 다른 상호작용 같은 관계라고 한다. 관계의 깊이, 행위자의 행위·활동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넓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트론토 교수는 영(Young)의 책임에 관한 ‘사회적 연계 모델’, 즉 관련된 모든 사람은 비록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트론토 교수는 워커(Walker)의 ‘가시적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철학자를 포함한 모든 도덕적 행위자의 지위가 평등하다고 전제하고 가시적 협력과 같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워커(Walker)는 ‘매우 신중하게 정제된 철학적 논리’가 도덕적으로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전문가 중심의 ‘이론적 법리 모델’)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도덕적 행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의 합의를 이끄는 가시적 협력 과정의 산물일 때 도덕을 인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가시적 협력의 산물인 도덕성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장을 하지 않고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타협이라고 본다. 추상적 도덕 원칙의 편견을 피하는 방법은 도덕적 삶의 논지를 만드는, 드러내고 협력하는 과정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시적 협력 모델을 통해 사람 간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사람과 책임을 올바르게 위치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트론토 교수는 책임 분담 과정이 돌봄에서 정치적 실천의 핵심이라고 본다. 돌봄필요가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지 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실질적 돌봄 노동자와 수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는 단순히 분배 문제가 아니라 책임까지 얘기해야 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책임을 분담하는 결정은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고 누가 회의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며, 책임분담을 통해 돌봄 혜택과 돌봄 부담에 대한 현재 분담을 설명하고 더 민주적인 대안을 상상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트론토 교수는 돌봄 평등에서 ‘평등한 발언권’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하지만 돌봄민주주의에서 책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트론토 교수도 개인 책임을 유일한 양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삶이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선택의 총합이라고 보는 신자유주의 사회관을 비판한다. 필자도 트론토 교수의 돌봄책임 강조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 관점으로 오도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트론토 교수는 모든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 환원하면 집단적 혹은 시장의 무책임을 설명하지 못하고 ‘더 능동적인 시민’이 사라지게 된다면 개인 책임으로 환원하는 관점을 거부한다. 또한, 선택은 자유, 평등, 정의가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트론토 교수는 시장 역할 가운데 몇몇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우선 ‘돌봄’ 관점에서 시장 방식이 전제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비판한다. 인간은 생애주기의 모든 국면에서 그러한 결정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개인을 가족 구성원이 대변하기 어려움,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 간 불평등한 지위, 교환이 간과하는 돌봄의 친밀성, 돌봄 교환 시 정보 비대칭 문제는 시장의 한계이므로 다른 제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한계를 지적하는데 시장은 인간 본성의 관계적 특징과 시간의 차원을 다루지 못한다고 본다. 돌봄책임을 논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시장 방식은 인간 본성의 관계론적 개념보다 원자론적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돌봄의 중요한 측면은 이야기를 듣고 돌봄수혜자를 관찰하며 다른 사람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시장은 제한적이라 본다. 이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시장의 한계, 즉 시장의 불평등 생산·심화·영구화, 선택이 곧 자유라는 관점의 비현실성도 지적한다. 더 근본적인 한계

는 생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삶을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이다.

트론토 교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살펴볼 때 공사 분리, 성별화·계급화·인종화 등 불평등하게 할당된 돌봄책임을 재검토하기 위해 무임승차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돌봄책임을 무임승차권은 보호형 무임승차권, 생산형 무임승차권, 나만의 돌봄형 무임승차권, 각자도생형 무임승차권, 자선형 무임승차권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돌봄의 성별화를 만드는 보호형·생산형 무임승차권은 치안, 군대, 생산활동 참여 명분으로 주어지며, 남성형 무임승차권이다. 돌봄의 계층 불평등을 만드는 나만의 돌봄형 무임승차권은 사적 돌봄을 통한 가정 내 해결을 명분으로 주어진다. 경제적 불평등을 만드는 각자도생형 무임승차권은 시장을 통한 해결을 명분으로 주어지며, 자선형 무임승차권은 타인을 돕는 자선을 명분으로 주어진다. 토론토 교수는 돌봄민주주의를 통해 이러한 무임승차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론토 교수는 돌봄의 특성을 구체적, 관계적, 복합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민주적 돌봄은 포용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돌봄 과정은 기존에 네 단계로 구성되었으나 민주적 돌봄을 고려한 ‘함께 돌봄’을 추가하여 다섯 단계로 제시한다. 즉, 돌봄필요를 감지하는 ‘관심돌봄(caring about)’,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는 안심(확신)을 책임지는 ‘안심돌봄(caring for)’, 실질적인 돌봄제공 활동이 수행되는 ‘돌봄제공(care giving)’, 돌봄을 받은 측의 반응이 발생하는 ‘돌봄수혜(care receiving)’, 돌봄필요와 돌봄필요 충족 방식이 모든 사람의 정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적 기여와 상통하는 ‘함께 돌봄(caring with)’이라는 다섯 단계를 민주적 돌봄 과정 내에 구성한다.

트론토 교수는 민주적 돌봄에서 정치는 인간적 관심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제안하며 그러한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은 문제를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것을 공부라고 생각하

며 트론토 교수가 실천적 관점에서 제시한 중요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김영민(2022)에 따르면 공부란 ‘우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즉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몸을 끄고-고 나아가는 일에서 시작’하고 ‘이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즉 타인을 돕는 일에 이르는 일련의 총체적 과정’이며 그 공부의 실효는 ‘타자·사린(四隣)을 돕기’로 드러난다.

한편, 트론토 교수는 돌봄민주주의의 주체인 돌봄민주시민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언급한다. 돌봄민주시민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과 우리의 돌봄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려고 국가와 사회에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돌봄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가치, 실천, 제도를 조성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돌봄을 증진하기, 즉 돌봄노동에 가치를 붙여넣는 방법, 예로 필수 돌봄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과 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 돌봄 모습을 증진하기, 즉 돌봄실천의 민주적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돌봄필요와 실천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사회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돌봄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쏟기, 즉 돌봄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조직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중하고 사려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즉 타인에게 미칠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검토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충족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트론토 교수는 돌봄민주주의와 민주적 돌봄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안한다. 책임분담의 가시적 협력 과정, 민주적 돌봄이 더 좋은 돌봄임을 관찰하는 것, 돌봄의 심의적 정치과정을 법제화(돌봄 목적의 명확한 정의, 돌봄관계의 파위에 관한 명확한 설명, 구체적·다원적 돌봄 방식 진행), 돌봄을 위한 시간과 공간 만들기, 돌봄책임을 방기하는 모든 무임승차권 회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돌봄책임 재협상을 제안한다. 트론토

교수가 제시한 돌봄책임 재협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보는 사회다.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는 사람들에게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돌봄의 관계에 함께할 평등한 기회가 있는 사회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어제와 오늘의 부정을 감추려고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삶의 목적은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지 돌봄을 주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민주사회는 몇몇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사회다. (번역서 316면)

트론토 교수는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도 제안한다. 돌봄책임의 무임승차권을 회수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유급 병가와 개인용무의 날 지정, 시민의 돌봄역량 강화를 위한 전 세계 시민의 협력, 불평등 돌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공적 돌봄 강화와 근무일 감소, 전 세계 돌봄 노동자의 열망과 필요 고려, 비시장적 정책 수단(과세, 보조금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제공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지금까지는 필자가 실천적 관점에서 주목하게 된 『돌봄민주주의』 책 내용을 소개하였다. 미처 담지 못한 많은 내용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둔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강점은 정치학, 여성학, 돌봄윤리 등 여러 학문 궤적을 통해 트론토 교수가 짚아온 인간과 삶, 돌봄과 민주주의에 관한 매우 풍부한 이해와 통찰, 그리고 현실과 실천을 고려한 논지이다. 예를 들면 시민의 평등은 언명 때문이 아니라 정교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만 평등해진다는 점, 인간의 자율성과 선택역량은 출발의 전제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성취물이라는 점, 인간 본성은 시간과 과거의 연고성에 연관되기 때문에 돌봄책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공간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인 점, 돌봄은 그냥 시민에게 주어지거나 소유하는 실재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사회적 과정이라는 내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론토 교수는 그러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되는 좋은 질문들의 향연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책에 대한 한계를 언급해야 한다면 책임분담의 수준(집단, 제도, 구조, 개인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는 점, 가시적 협력의 도덕 모델에서 모든 사람의 견해를 포함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논의가 없는 점, 민주적 돌봄이 더 좋은 돌봄이라고 예를 든 사례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 사회권을 법적 권리로 협소하게 소개한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권의 경우, 트론토 교수는 사회권이 국가가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방향적 관계를 전제하는 모델이라고 비판한다. 일견 동의하나 필자가 알기에 인권(사회권)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학문적·실천적 시도는 상당하므로 트론토 교수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필자는 오히려 사회권 모델에 가시적 협력 모델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트론토 교수의 제안, 즉 국가 역할을 공적 토론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제안부터 사회권 모델과 가시적 협력 모델을 동시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 책은 반복적 읽기와 세미나를 통해 여러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재료로 권장하고 싶다. 개인적 효능감이긴 하나 필자는 이 책을 읽고 난 전후로 특정 현안에 대한 답답한 심경이 일말의 도전 가능성으로 변화한 경험을 가졌기에 더 권장하고 싶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고령 인구 비율은 30% 이상(30.3%에서 36.8%까지)이며 인구 밀도가 낮고 땅은 넓으나 대중교통은 좋지 않다(통계청, 2024).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을 읽고 돌봄민주주의와 민주적 돌봄 과정을 접하게 되니 앞으로 무엇이 중요한 관점이고 방향인지 그 실천 함의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개인적 효능감으로 나타난 것 같다.

역자들은 개정판 옮긴이 해제에서 돌봄 불평등의 현실을 직시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맞선 응원봉과 2030 여성을 포함

한 시민의 민주적 실천, 워커(Walker)가 말한 도덕적 사고의 한 방식으로서 이야기(story)의 중요성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돌봄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다. 필자는 그 이야기의 재료로서 트론토 교수의 『돌봄민주주의』를 추천한다.

참고문헌

- 김영민. (2022). 적은 생활, 작은 철학, 낮은 공부. 늘봄.
- 조안 C. 트론토. (2024). 돌봄민주주의(김희강, 나상원, 역). 박영사. (원본 출판 2013년).
-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지역별 고령 인구현황. 2024년 12월 기준. <https://jumin.mois.go.kr>.
- Armenia, A. (2014). Book Review: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by Joan C. Tronto. *Gender and Society*, 28(3), 496-498.
- Moskop, W. W. (2015). Book Review: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by Joan C. Tronto. *American Political Thought*, 4(2), 350-354.
- Robinson, F. (2014). Book Review: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by Joan C. Tronto. *Politics and Gender*, 10(4), 714-712.
- Spinner-Halev, J. (2014). Book Review: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by Joan C. Tronto.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2(2), 449-454.
- Tronto, J. C.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